



# 주님의 수난, 죽음, 부활

이낙희 신부 편집자

## 차례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예수님이 사용하신 당나귀. 세상의 의견은 변덕스럽습니다.	6
수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6
고통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소금입니다.	8
당나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보좌였습니다.	12
성주간 월요일.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냄새.	15
베다니의 마리아의 관대함.	15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18
우리는 성막에 진정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21

성주간 화요일.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5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
하느님은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29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구합니다.	31
성주간 수요일.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	36
유다도 다른 사도들과 같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36
유다의 배신은 작은 것에 대한 양보, 특히 돈에 대한 집착의 결과였습니다.	40
희망을 키우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43
주님 만찬 성목요일. 사랑은 가장 숭고한 것입니다.	47
주인이자 주님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47
예수님의 숭고한 겸손과 무한한 사랑은 성체성사에 담겨 있습니다.	51

축복받은 성찬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55
미사를 깊게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59
성금요일. 고통 없이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70
동산에서의 예수님 기도.	70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속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초대합니다.	74
갈보리 길을 가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거룩한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78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81
성 토요일. 성모 마리아는 우리의 희망을 지탱해 주십니다. 더 천천히 삽시다. 침묵과 기다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87
스승의 죽음 이후 제자들의 낙담.	87
성모님은 마음이 약해진 제자들의 믿음과 용기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91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께 갑시다.	94

주님 부활 대축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삽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살아 계십니다.	98
거룩한 여성들의 신앙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98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과정이며, 십자가와 부활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101
우리가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은 은혜의 역사이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103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예수님이 사용하신 당나귀.

세상의 의견은 변덕스럽습니다.

수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도착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겂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 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래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오.”하고 대답하였다. (마태오 21, 8-11).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어떤 종류의 공개적인 찬양도 반대하셨고,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마다 숨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승리의 길로 이끄십니다. 죽음을 앞둔 지금에 와서야 그는 메시아, 정복자, 왕으로 칭송받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통치할 왕입니다. 지금 그를 환호하며 찬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버리고 갈보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장면은 극명한 대비로 가득합니다.

- 손바닥이 채찍이 됩니다,
- 올리브 가지, 가시;
- 승리의 함성이 조롱과 저주로 바뀔 것입니다.
- 오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라고 외치고, 일주일 뒤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다가 며칠 뒤에는 "우리에게 시저 말고는 왕이 없다!"라고 외칩니다.
- 녹색 나뭇가지와 십자가의 차이점
- 오늘은 꽃, 나중에는 가시!
- 오늘은 옷을 카펫처럼 깔아놓고 나중에 옷을 벗기고 그 위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손바닥을 축복하는 의식과 미사 본문을 통해 전례는 행복과 고통, 기쁨과 슬픔이 주님의 삶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 줍니다.

고통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그다지 가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의 순간적인 승리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같은 도시에서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승리의 환영과 신성한 찬사를 받으며 영광을 누린 다음, 재판소에 끌려가 학대를 당하고 마침내 고문을 당하며 악인들과 함께 번호가 매겨집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기쁨의 끝이며 지상의 영광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 길 203) "우리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은 초자연적 인 동기가 있더라도 항상 약간의 쓴맛을 남깁니다.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이 땅에서 고통은 삶의 소금입니다.

성주간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측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고통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쉽게 위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 모든 인간의 삶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아픔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에도 자주 아픔이 있었고, 몇 번이고 정말로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여러분께 기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만나야 한다는 진리를 항상 강론해왔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불의와 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과도 맞서 싸워왔습니다.

고통에 관해 얘기할 때 단순히 이론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고통과 맞닥뜨려서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린다고 느낀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최선의 치유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는 다른 사람의 경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갈바리아산의 수난 장면은, 고통은 거룩하게 변모해야 하며 우리는 십자가와 하나 되어 살아야 한다는 진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면, 그 어려움은 속죄와 배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또한 예수님의 운명과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해줍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뇌를 스스로 기꺼이 겪어내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생활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공격받고, 모욕당하고, 헐뜯기고, 중상모략에 걸리고, 부당하게 비난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고독을 실감했고 형벌과 죽음의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고 계십니다. 인류의 머리이자 맏이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같이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은 하느님 계획의 일부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성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68).

당나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보좌였습니다.

승리의 행렬은 또 다른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용하고 유순한 당나귀가 주님을 신실하고 순종적으로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당나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보좌였습니다. 주님을 보좌로 섬기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성호세마리아).

불쌍한 당나귀가 주님의 입성을 기리기 위해 깔아놓은 비단과 보라색 린넨과 고급 예복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바치지만, 당나귀는 자신을 바칩니다: 그는 예수님의 짐을 온화하게 지고 갑니다. 사도들조차도 당나귀만큼 우리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완벽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딸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요한 12,15)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시겠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비천한 동물을 왕좌로 쓰십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눈에 제가 한 마리의 당나귀로, 짐승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 앞에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늘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께서 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73,22-23) 예수님 당신께서 제 고삐를 쥐셨습니다.

당나귀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시다만, 그 짐승의 모습을 한 번 떠올려보십시오. 난데없이 발길질을 해대는 늙고 고집스럽고 고약한 당나귀 말고, 귀가 안테나처럼 쫓긋한 어린 당나귀를 생각해보십시오. 그 녀석은 많이 먹지 않고 힘들게 일하며 잼싸고 경쾌하게 걷습니다. 더 말쑥하고 날래고 힘센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군중의 환호에

답하시며 임금으로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택하신 동물은 당나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활한 사람들과 냉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십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은 젊은 마음, 소박한 발걸음,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지니는 활달함, 그리고 당신의 애정 어린 충고에  
주목하는 맑은 눈동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성 호세마이라,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81).

성주간 월요일.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냄새.

베다니의 마리아의 관대함.

“예수님께서서는 파스카 축제 몇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여 있었다.” (요한 12, 1-2).

예수님은 애정이 넘치는 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종종 베다니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엄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중이었고, 나사로와 그의 가족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 그러자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요한 12, 3).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죠. 마리아의 사랑은 곧 일어날 사건을 예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자신의 길을 과감하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물건인 값비싼 나르드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 위에 부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향아리까지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녀의 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분개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마르코 14, 4).

가룟 유다는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요한 12, 5).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요한 12, 6).

메리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불러일으키는 비난과 비난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이 여자를 가만 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 줄 수 있다.” (마르코 14, 6-7).

마리아의 태도는 영원히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아낌없이 신실해지라는 부드러운 초대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언제나 아주 미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좋은 이름은  
기분 좋은 향기와 같기 때문에 세상도 그녀의 좋은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욕합니다. 나쁜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이 모독되고 좋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찬양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진실하고, 평화와 자기희생과 봉사로 가득 차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특히 하느님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하고 분명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행동이 일관되고 효과적이며 올바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발산하여 그분의 행동 방식을 떠올리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성 호세마리아).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의 결정은 확고합니다. 그로부터 빛과 아름다움과 힘으로 가득 찬 생명이 모든 인간을 위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과 협력하고 함께 구속하도록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오 16, 24).

그분은 우리가 영혼에게 선을 행하는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수난에 따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특별한 기회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바치고, 그분을 섬기는 데 아낌없이 쓰고, 그분의 지상 여정에 충실히 동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거의 항상 작은 것들, 어린아이의 것들 속에 있으며,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손을 통해 그것들을 봉헌함으로써 큰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린이 같은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것은 소소하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인데, 우리가 기계적인 것이 되지 않게 조심하기만 하면, 하느님의 사랑이 언제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것들도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호세마리아, 길 859).

우리는 성막에 진정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함이다." (이사야서 42, 6-7).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희생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천국을 자신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성막에 머물며 진정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마리아를 감동시켜 베다니에서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보살핌을 보여 주었다면, 사랑과 믿음은 우리도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과 함께 진정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구속하셨기에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사랑이 되고 싶습니다. (성 호세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는 주님께 기름을 부을 때 그토록 귀한 향유를 다 써버림으로써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비열함을 모르는 사랑의 자발성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감사하십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마르코 14, 8-9).

"베다니아의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주님의 머리에 값진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은, 하느님을 흠송하는 데 관대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호화스러움과 장엄함과 아름다움도 내게는 시시해 보입니다. 그리고 성작, 제의, 제단의 호화로움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예수님의 칭찬이 들립니다. "나에게 가룩한 일을 했다." (길 527).

그리고 성 호세마리아는 우리에게 축복받은 성사에 대한 애정을 보여 달라고 초대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러 올 때, 동시에 복되신 삼위일체,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고 베들레헴과 나사렛에 계셨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성막에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을 불러주십시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복되신 삼위일체와 일치시키고, 지상에 계신 삼위일체, 즉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가장 완전한 사람인 성 요셉을 기억하세요. 소리 내어 말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성 호세마리아).

성주간 화요일.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화요일,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앞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 보셨지만,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르코 11, 12-13).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저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배고프셨어요!

우주의 창조주, 만물의 주재자, 전능하신 분이 배고프셨습니다! 그분은 배가 고파서 저 멀리 무성한 앞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향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다가가자 나뭇잎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프고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외치셨다: 나는 목마르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과 당신의 사랑, 당신의 영혼, 불멸의 길인 십자가의 길, 하늘의 영광으로 가는 길로 그분께 올리는 것이 당신의 의무 인 모든 영혼을 위해 목 마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목마르고 배고프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당신이 형식적이고 건조한 방식으로, 생동감 없는 믿음으로만 그분께 자신을 바쳤다면 그분은 당신에게서 나뭇잎 이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당신 안에 겸손이나 희생이나 일이 없다면, 당신이 겉모습에 지나지 않고 매순간의 세부 사항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그분은 당신에게서 나뭇잎 이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 호세마리아).

먹을 것을 찾지 못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마르코 11,14).

"이 말씀이 네 믿음과 그 믿음에 부합하는 네 삶이 어떠해야 그리스도를 항상 위로하는 열매, 즉 선한 일로 관을 씌운 네 사업과 사도적 열심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지 않느냐?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한꺼번에 시들었습니까?"라고 말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나무는 시들었다. 이제 나무는 여행자에게 좋은 열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루터기에 불과했습니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오 21,21).

"내 자녀들여, 보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우리의 방식을 세상에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원하고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산, 장애물, 오해, 속임수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 행동과 희생이 있는 믿음, 겸손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은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면 모든 사건과 행동 하나하나를 이 초자연적인 지식에 비추어 숙고하는 법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은 초자연적 삶과 동물적 삶, 두 가지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느님의 삶, 초자연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태 16,26)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열망하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눈에서 사라지며, 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도 한낱 무대 소품과 화면에 불과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가야 영원한 삶이 펼쳐진다면,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영원’이라는 말 덕분에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성녀가 오빠

로드리고와 함께 아다하 문을 통하여 아빌라를 나섰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무어인들의 땅을 향하여 성벽을 뒤로하고 출발했을 때, 피곤해지기 시작했던 오빠에게 어린 성녀는 계속해서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하고 속삭였습니다.

지상의 것에 대하여 ‘영원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전적으로 참되게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의 달콤한 꿀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성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200).

우리는 시편 저자처럼 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은 당신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겸손의 확실한 표시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회개하는 영혼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기도를 들어 주실 만한 놈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러하오나 당신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발고랑 469).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구합니다.

“이 복음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신앙을 굳건히 하고 그에 걸맞은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님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적 노력의 결실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가장 원대한 계획도 주님 눈에는 한낱 어린이의 놀이에

불과합니다.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사랑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인간이 그분께 와서 영원히 당신 나라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또 잘 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일들을 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랑하려고 일을 한다면, 앞서자귀밖에는 아무것도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앞서자귀들이 아무리 무성하다 한들, 주님께서도 우리 동료들도 그 사이에서 아무런 열매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202).

우리는 하느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전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마태오 21,22).

신앙인이란 이 세상의 사물들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데레사 성녀의 표현을 빌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쁜 여관의 나쁜 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일하고 싸우며 우리 자신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하느님의 정의에 빛진 것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인이란 이 세상 것들은 모두 수단이며 그것들을 관대하고 영웅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에는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아마도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더러운 영이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한 것처럼 합시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치유를 간절히 바랐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 주시기를 희망하였지만, 그러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믿음까지는 지니지 못하였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동시에 인간 영혼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도우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르코 9,23).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여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한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열매이고, 참회의 열매이며, 참된 겸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르코 9,24).

이번 성찰을 마치면서 우리도 주님께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거듭거듭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주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많이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느님의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이신 분, 그리고 믿음의 스승이신 성모님께도 같은 간청을 드립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1,45).

성주간 수요일.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

유다도 다른 사도들과 같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성주간 수요일인 이 날, 교회는 초기부터 유다의 배신을 기억해 왔습니다.

“그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른 닢을 내주었다.” (마태오 26, 14-15).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던 이 사도의 마음속에는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과의 첫 만남이 얼마나 멀게만 느껴졌을까요! 가룟 유다 역시 신성한 소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개인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사도들을 봅니다. 깨끗한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바치러 온 청년 요한과 멀리서 온 다른 사람들. 그들은 호수 기슭이나 세금 부스에서 우리 주님의 눈에서 빛나는 빛을 보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영원히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배와 그물을 두고 떠났습니다. 다른 한 명은 자신이 관리하던 돈을 두고 떠났습니다. 또 한 명은 부모님 또 다른 사람은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라고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은 유다라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도도 한 명 있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이 장면들을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따라 그분의 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제 영혼은 감격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도움을 확신하며 그분 곁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이 성경 구절의 기저에는 소명, 빛,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은 소명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며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기둥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대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을 노예 값인 은 30 냥에 팔아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임박한 수난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버림에 대한 고뇌로 극복하는 장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마태오 26,21).

다른 11 명의 사도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마태오 26, 22-25).

유다가 성막을 떠났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전파한 사도로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었던 유다는 그 대신 탐욕으로 가득 찬 배신자, 가장 소중한 값진 보물을 동전 한 줌에 팔 수 있는 영혼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작은 것에 대한 양보, 특히 돈에 대한 집착의 결과였습니다.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배신은 한 순간의 광기가 아니라, 연속된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성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유월절 며칠 전 베다니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 1 파운드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은 사치스러운 행위에 대한 유다의 비판이 그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사치스러움은 얼마나 빛나는 관대함의 증거인가요! 반면에 유다는 이렇게 귀한 향수를 낭비한 것을 한탄합니다. 그는 욕심에 사로잡혀 가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은화 3 백 개는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유다는 마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마리아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차라리 향수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성령께서 성 요한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요한 12,6).

불륜의 뿌리에는 지독한 가난과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애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께 자신을 바쳤다가 나중에 나빠지면 사탄이 유다에게 하게 한 것처럼 돈을 숨기고 가난에 대항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반짝이는 물건을 쌓아두는 불쾌한 새들처럼 돈을 숨겼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그것을 원했습니까? 그의 비참한 행동과 불신앙으로 하느님을 불쾌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 호세마리아).

적들이 우리의 충성을 가로막는 올무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는 겸손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소명은 우리에게 무한한 안정감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모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즉시 떠나야 합니다.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을지도 모르는 유다만이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정신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떠났습니다.

충실하려면 성실해야 합니다. 신실하려면 매우 겸손해야 하며 디렉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강하지만 확실하고 애정이 가득한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처럼 여러분을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희망을 키우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를 잃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붙잡히셨을 때에도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며 그의 입맞춤을 받아들이면서 유다가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도 유다가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회개한 도둑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죄 위에 죄를 쌓아 올린 채 절망에 빠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서른 닢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네 일이다.” 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마태오 27,3-5).

배신과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슬픈 밤, 베드로도 우리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절망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와 유다의 후회의 차이점은 베드로는 희망을 굳게 지킨 반면, 유다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심판을 신뢰하지 않고 희망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오직 대문자로 된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로 잘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 후에는 사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희망의 미덕을 길러야 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이 떠오를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국에는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끝나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사랑. 결코 지치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사랑.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겁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미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깨닫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인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망을 지켰다면 여전히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절대로 신뢰를 잃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손에 이끌리도록 내버려두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더 큼니다. 우리가 참회의 성사를 통해  
주님께 정직하게 돌이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성모 마리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주님 만찬 성목요일. 사랑은 가장 숭고한 것입니다.

주인이자 주님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 13,1)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읽는 사람은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이 도입부는 루카복음의 다음 구절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루카 22,15)”

성령께 간청하면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자 하는 열망을 내보이신 까닭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요한 6,68)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를 선언하게 합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 6,69) 신심과 신앙은 우리가 요한 성인의 대담함을 닮게 해주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스승님의 가슴에 안겨 의지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렬히 당신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을 사랑하시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말로도 성목요일의 신비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바리아산에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당신의 벗들(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마지막 저녁,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83).

그리스도의 마음 속 첫 번째 감정이자 나머지 모든 감정의 근원은 아버지 하느님과 모든 사람에 대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수난이 임박했을 때 분위기는 사랑과 친밀감, 회상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만물을 자기 손에 주셨고, 자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느님께로 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에서 일어나 옷을 벗어 놓고 수건으로 몸을 띠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고, 띠를 두른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요한 13, 3-5).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 주님으로 올바르게 불리는 사람은 종이 됩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아직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막으려 합니다. 그의 사랑은 위대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는

사랑이 희생을 통해 형성되고 자기 비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겸손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기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한 번 더 몸소 모범을 보여 주십니다. 교만와 허영에 휩싸여 논쟁에 빠져 있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굽히시고 기꺼이 종이 하는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다시 식탁에 앉으시어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요한 13,12-14). 우리 주님의 본보기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은 ‘만일 내가 이것을 한다면, 너희는 얼마나 더 많이 해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제자들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에게 관대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랑스럽게 책망하십니다." (성호세마리아, 하느님의 친구들, 103).

예수님의 숭고한 겸손과 무한한 사랑은 성체성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날 밤, 엄숙한 유월절 절기 철야에 주님은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발을 씻기시며 자신을 낮추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겸손은 빵을 받으실 때 무한한 비율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한 후에 떼어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여라." 저녁 식사 후 잔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에 담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행하십시오." (1 코린 11, 23-25).

축복된 성사에서 우리는 주님의 지극히 풍성한 사랑과 동시에 위대한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곳에 계십니다. 왕 중 왕이시고 주님 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빵 속에 숨어계십니다. 그대를 위한 사랑 때문에 지극히 겸손되어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길 538).

겸손과 함께 성체성사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의 인간적 체험에 관해 생각해봅시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 머물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짙어진 어떤 의무가 그들을 억지로 갈라놓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열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큼 위대하건 간에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러기에 인간의 사랑은 상징적인 표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작별하는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사진을 교환하지요. 그 사진을 태우고도 남은 만큼의

서로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힘은 그들의 열망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하느님이자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징이 아닌 실재를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가실 것이지만 동시에 인류 가운데 남아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당신을 기억하게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남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금방 바래져 누렇게 되는 사진처럼 세월이 가면 흐려지는 그림을 남기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같은 시대를 사는 당사자들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성체와 성혈로, 그분의 영광과 신성으로 영원히 현존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성체께 항상 불러드렸던 그 찬미가를 우리는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입을

열어 찬양하세. 영광의 성체 신비. 세상 구원 이루시려  
흘리신 성혈 신비. 강생하신 만민 임금. 당신 피  
흘리셨네. 순결하신 동정녀가 낳으신 아드님이 구원을  
이루셨네” 우리는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우리 하느님을  
열렬히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동정 성모님께 잉태되어 나서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당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신 것입니다. 창으로 당신 옆구리를 찔리신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시는 거룩한  
잔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수난을 새롭게 기억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미래의 영광을 약속받습니다. 교회 전례는  
우리를 향한 주님 사랑의 역사의 정점을 이렇게 몇  
마디의 말씀으로 요약해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인간의 운명과 열망, 분투와  
고통을 무관심하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멀리 계신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복되신 삼위일체의 제 2 위격이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은 사랑 넘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당신께 친절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83-84).

축복받은 성찬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체성사는 영적 생명의 총만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주십니다. 사랑은 성체성사 안에서 그 이상에 도달하는데, 성체성사는 연인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동일시를 이루어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성 시릴이 가르칩니다.

"두 조각의 밀랍을 합쳐 불에 녹여 하나의 조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귀한 피를 받으면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목요일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이토록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성사를 세우심으로써 항상 우리 곁에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때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다른 모든 자비의 증거들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당신 자비의 새로운 증거로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이유 중 한 가지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그분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지만, 우리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복되신 삼위일체께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은총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려 주셨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세 1,26)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죄는 물론이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뻗친 원죄로부터 구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또한 인간의 영혼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요한 14,23).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84).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서 일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당신께 마음의 문을 여는 한 주님께서서는 당연히 항상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김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요한 13,15) 마지막 만찬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야망, 그리고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거부합시다. 그리하면, 우리들 저마다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 주위와 내면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이시자,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또 어린 시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 비오 10 세 교황께서 영성체를 자주 하라고 격려하셨을 때였죠. 제가 어렸을 적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는 성체조배를 하시는 성모님 그림이 매우 흔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언제나 우리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다가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찾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특히 현재의 시간이 영원(永遠)과 만나는 미사성제,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으라고 가르쳐주십니다. 그분께서는 고결한 사제의 몸짓으로 모든 것을 당신께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숨결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느님의 현존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94).

미사를 깊게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 사랑의 위대하심에 응답할 수 있을지, 아마도 한두 번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명료하게 설명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애정을 다해 미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깊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요약한 희생제사, 미사성제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사 때 계속 이어지는 기도에서,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행동에서, 그 수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보아온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들 삶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들 가운데는 우리가 개선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악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생각하며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형제적 태도도 있습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제대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의 청춘에 기쁨을 주시는” 하느님의 제대입니다. 미사는 기쁨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그리스도와 모든 성인들의 상징인 제대에 입을 맞출 때에 사랑, 감사, 그리고 기쁨이 드러납니다. 제대는 작은 평상이지만 거룩하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성사가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참회’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죄를 추상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와 연약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반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공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쓰라린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로 인해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영광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독서와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빛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지력이 알아듣고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행동하려는 우리의 열망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일치 안에 모여 있는" 하나의 백성이므로 우리들 신앙의 일치를 확신하며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이어서 봉헌입니다. 인간이 만든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바칩니다. 참으로 미소한 제물이지만 기도와 함께 바쳐집니다. "주 하느님, 저희를 받아 주소서. 겸손한

마음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봉헌하는 제물이 당신께 건네져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미소함을 되새기고,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정화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떠올립니다. "저는 제 손을 씻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 집의 아름다움을 사랑해왔습니다."

방금 전 세수식 직전에 우리는 성령께 간구하였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드리는 이 희생제사를 축복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손을 씻은 후 사제는 미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받으소서, 거룩한 성삼이시여" 그리스도의 삶과 수난과 부활과 승천을 기리며, 또한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봉헌된 이 제물이 모든 이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사제는 신자들을 기도로 초대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왜냐하면 이 희생제물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고 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바치는 제물인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비록 미사에 참례한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실제로 한 사람만 참석했거나 주례 사제 혼자만 있더라도, '형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사는 보편적인 희생제사이자, 모든 종족과 국민과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전례인 까닭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인들의 통공을 통해서 봉헌되는 모든 미사로부터 은총을 받습니다. 미사에 수천 명이 참석했든지, 아니면 단생각만 하는 복사 소년 한 명만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어느 경우이건 하느님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과 땅이 같이 노래합니다. "거룩하시도다."

저는 천사들과 함께 경배하고 찬미합니다.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미사를 집전할 때 그들이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찬미하며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서도 함께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느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이시고,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동시에 그분의 성체와 성혈의 모친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하느님이시며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관여 없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모 마리아께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혈관에는 당신 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피가 갈바리아 산에서, 그리고 미사에서 구원을 위한 희생제사에 봉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자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며 감사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 즉, 교황과 우리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톨릭 신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배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평생 동정이신 은총의 성모님과 그리스도를 처음 따르고 그분을 위해 순교한 이들을 떠올리며, 그분들과 우리의 일치를 되새깁니다.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온 가족이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성체축성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미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의 잔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바뀌는 실체변화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기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순간이 다시 왔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당신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언어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손에 놓아주실 때, 빵과 포도주라는 약한 모습으로

무방비로 놓아주실 때,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당신을 섬기는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더 많은 기도가 이어집니다. 주님께 간청해야 할 것들의 절실함을 거의 매 순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들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충실함의 부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견디시며,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감사기도는 복되신 삼위일체께 드리는 또 다른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예수님께서서는 길이시며 중재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분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당신께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시는 사랑 가득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가 되풀이되듯이 말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등불과 음악, 격식을 갖춘 옷 등 최상의 것들을 꺼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인생에 단 한 번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성체를 자주 모시는 것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영성체를 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기억합니다. 성체를 모시려면 영육간에 모든 것이 올곧아야 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머리도 잘 단장해야 했습니다. 신체적인 청결함도 중요했고요. 아마 향수도 몇 방울 뿌렸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온갖 정성을 들여 영성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사랑을 되갚을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미사를 마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이 우리와 온종일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정직한 사람들의 활동을 거룩하게 만드는 단순하고도 일상적인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미사에 참례하면, 여러분은 하느님의 세 위격과 개별적으로 깊은 친교를 맺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성자를 낳으신 아버지 하느님과 성부에 의해 탄생하신 성자,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는 성령...

하느님의 이 세 위격과 각각 친교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위격 중 어느 한 분께 다가서면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께 모두 가까이 갈 때 우리는 다시 진정한 한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섭니다. 미사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영성체를 통해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열망에 화답하지 못한다면 할지라도 믿음과 희망과 불타는 사랑으로 성체를 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88-91).

성금요일. 고통 없이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동산에서의 예수님 기도.

삶과 말씀으로 기쁨을 전하던 신성한 스승이 이제 올리브 동산에서 슬픔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찢을 채찍질, 타격, 모욕, 조롱, 못과 창 등 자신의 수난과 죽음이 매우 가까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친구들의 버림, 스캔들, 배신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제 밤의 어둠 속에서 사도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슬퍼하시며 고통당하십니다. 그분의 성혈 방울이 땅을 적십니다. 예수님은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 속에서 머물러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슬피 울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최악의 무게가 그분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 거룩한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제 1 단).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루카 22, 42).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아픔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건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마르코 14, 34).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결단력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실 정도로 고뇌에 빠지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니다.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하늘에서 온 천사는 예수님을 위로해드립니다. 예수님은 고뇌로 가득 차 계십니다. 고통이 더해질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제 1 단).

우리 삶에는 낙담의 유혹과 함께 더 힘든 투쟁의 순간, 아마도 어둠과 깊은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런 상태를 겪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십니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마르코 14, 38).

“하느님의 힘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도와 주기를 원한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올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육체의 잠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잠을 벗어버려서 그리스도의 문을 부르고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 앰브로스).

예수님은 나에게 고통을 보내실지라도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상처를  
주면서도 나를 부드럽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느님의 가장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나 역시 여행의 동반자로서 고난을  
만난다면 불평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의 신성한 아들을 대하신 것처럼  
나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아들됨의 확실한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겐세마니에서 홀로 신음하며 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땅에 엎드려 나의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주님께로 올라올 것입니다. "나의 아빠!" (성호세마리아, 십자가 길, 1,1).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속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초대합니다.

빌라도 총독의 질문에 군중은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왜, 그가 무슨 악을 행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켜주려고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매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여, 기둥에 묶이시어 상처투성이가 되신 예수님....

죄로 가득 찬 당신의 육체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죄 없는 분의 육신, 바로 찢겨진 그 몸 위를 강타하는 채찍질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완전히 지쳤을 때에야 예수님의 몸을 묶었던 끈을 풀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온갖 고통을 받아내고, 마치 짓밟혀버린 벌레와 같이 거의 죽은 상태로 땅에 넘어집니다." (거룩한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제 2 단).

모든 인류의 죄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냉담한 마음과 비겁함, 속죄와 사랑의 결핍이 홀로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을 차갑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당신과 나는 말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으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말없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래도록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보속을 행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제 2 단).

하지만 그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채찍질한 후에도, "잔혹한 군인들이 지극히 순결하신 주님의 몸에서 옷을 벗깁니다. 그들은 낱아빠지고 지저분한 자주색 누더기를 예수님께 입혀드립니다.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게 합니다.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는,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면서 그분을 조롱합니다.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거룩한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제 3 단).

이사야의 예언자적 목소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고통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묘사합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이사야서 53, 2-5).

"상처로 뒤덮인 예수님의 몸은, 진정 슬픔의 초상화입니다... 반면에 나는 편안함만을 수없이 찾았고, 무수한 번덕과 무관심, 그리고 수많은 비열한 짓을 했다는 것이 지금 기억납니다... 그리고 내 몸에 대한 그릇된 연민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당신의 수난과 십자가를 통해 제가 감각의 고행을 실천하고, 저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뿌리 뽑을 힘을 주소서." (십자가의 길, 10, 2).

갈보리 길을 가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거룩한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치 축제인 듯이 그들은 긴 행렬의 호위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천천히 인정사정 없이  
고문을 해대며 자신들의 승리를 즐겨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빨리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데에 아픔과, 사랑을 연장시킬 시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2,2).

갈보리로 가는 길은 짧지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긴 길이 될까요!

"구경꾼의 무리는 큰 인파로 불어났습니다. 군단의  
군사들은, 독이 터진 강물처럼 예루살렘의 거리와  
골목길로 흘러넘치듯이 밀어닥치는 그 성난군중을  
겨우 억제할까 말까 합니다. 예수님의 지친 몸은 이제  
그 커다란 십자가 밑에서 비틀거리십니다. 한 차례의

날카로운 아픔이 예수님의 영혼을 꿰뚫어서 그분은 기진맥진하고 땅바닥에 쓰러지십니다." (십자가의 길 3).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이 광경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레네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돕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모든 마음에, 또 온 세상의 모든 곳에 심을 수 있는 힘을 청하십시오. 그런 다음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보속을 바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심장의 고동소리와 함께,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십자가의 길 5, 5).

처음에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단지 강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스러운 나무와의 접촉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때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오셔서 골고다까지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이 만남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시 새로운 헌신으로 마음과 입술로 "예!"라고 대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체념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지는 맙시다. 십자가를 어깨에 잘 짊어지십시오. 이렇게 짊어진 당신의 십자가는 보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거룩한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의 십자가는 고통스럽지 않은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성모님을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 제 4 단).

오늘 기도에서 우리가 결심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기 위해 성모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구속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곳에 높이 들어 올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공장과 작업장의 소음 속, 도서관의 고요 속, 거리의 아우성 속, 들판의 정적 속, 가족의 친밀함 속, 사람들이 들끓는 모임 속, 경기장 등..... 고귀한 생활을 영위하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가 있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당신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세워 놓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11, 3).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피를 흘리지 않고 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할 수 없었을까요?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토록 온전히 자신을 내어 주길 원하셨을까요?

"그분께서는 그토록 많은 고초를 겪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쓰라림들을, 그 모욕들을, 그 학대들, 그 부정한 판결을, 또한 그 사형틀의 수치를, 그리고 못들을, 그리고 창을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대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모든 고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가다 그대가 십자가상 앞에 혼자 있을 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참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눈물을 새로운 결심으로 멈추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길 11,1).

우리 마음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 13).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 입으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어떤 문구도 당시의 실제상황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진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자면 오래전 어느 작가가 쓴 글귀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고통의 자화상이다." 생명을 잃은 그분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져 어머니 성모님께 전달됐습니다. 그때 멍들고 으스러진 그리스도를 보고, 그렇게 파괴된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아마도 그분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한때 그를 따르던 군중은 어디에 있으며, 그가 예언했던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승리였습니다.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부활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순명으로 이루신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95).

하느님이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해방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사랑은 언제나 더 멀리 나아갑니다. 사랑은 계산과 측정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사랑에 응답합니다.

"저는 당신의 것이고, 저 자신 전체를 당신께 드리오며, 또 저는 기쁘게 저 자신을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당신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구원사업에, 그리고 전 인류의 공동 구원사업에  
바쳐지는 영혼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11).

“그리스도 죽음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죽으심의 외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진부한 표현들을 뛰어넘어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주간의 이 며칠 동안 우리가 다시  
체험하는 그 장면들 속으로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 체험해야 할 그  
장면에는 예수님의 슬픔과 성모님의 눈물, 그리고  
사도들의 도망과 거룩한 여인들의 용기가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던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과 니코데모의 대담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그분께 가까이  
다가갑시다. 그리고 골고타 언덕 꼭대기에서 어렵듯이  
드러나는 그분의 십자가에 다가섭시다. 우리는 그분께  
진심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징표인 내적 기도로 그분께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수난의 거룩하고도 인간적인 사건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관통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서 기대하시는 바를 보여주시기 위해 건네시는 그분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어느 그림을 보았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옆에 세 명의 천사들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한 명은 절망에 겨워 울고 있었고, 또 한 명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임을 스스로에게 애써 납득시키려는 듯이 한 손에 못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그림 속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울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그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

장엄한 진리 깊숙이 우리의 신앙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하느님 사랑에 대한 놀라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우리들 자신의 삶과 희생의 본보기이자 동기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승리자의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승리하실 것이며, 그로 인해 죽음은 삶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01).

성 토요일. 성모 마리아는 우리의 희망을 지탱해 주십니다. 더 천천히 삽시다. 침묵과 기다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스승의 죽음 이후 제자들의 낙담.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였던 갈보리 근처의 무덤에 다정하게 안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업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이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들을 속량하였기 때문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십자가의 길 14).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1 코린도 6, 20).

그 당시 사도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묻을 때 요한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그 외로운 시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후회에 짓눌려 예루살렘 거리를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었을까요?

저녁 무렵, 그들은 이전에 스승님과 함께 모였던 성전에 다시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대화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들을 매료시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매달리도록 이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무덤에 누워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낙담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실패감이 컸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의 대화에서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루카 24,21).

거룩한 여인들도 마찬가지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끝까지 충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죽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덤과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안치되었는지 관찰하는 것이었고, 안식일이 지나면 돌아와서 방부 처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슬픈 사건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깊은 고통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신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희망은 이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힘과 그들이 회상하는 수많은 놀라운 사건의 증거 덕분에 희미한 빛만 남아있었습니다.

사도들과 거룩한 여성들의 이러한 실망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들과 같아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외로움, 버려짐, 굴욕의 시간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분을 위해, 대담하게 일어섭니다..... 영웅적인 용기로!

그들과 함께 저 역시 십자가 아래까지 가서 저의 양팔로 이제 차가워진 그분의 몸, 그리스도의 시신을, 제 사랑의 불길로 굳게 껴안고..... 저의 보속과 고행으로 시신에서 못을 뽑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깨끗한 생활을 통해 시신을 새 수의로 싼 다음, 살아있는 바위인 제 가슴에 시신을 묻겠으니, 거기에서는 아무도 저한테서 시신을 빼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주님, 거기서 쉬시옵소서! 온 세상이 당신을 버리고 당신을 모욕한다 하여도... 주님,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14, 1).

성모님은 마음이 약해진 제자들의 믿음과 용기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성모님은 매우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십자가 기슭에 가장 먼저 서셨지만 성녀들과 함께  
무덤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고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아드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대한 슬픈 기억과 함께, 온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엄청난 위로로 가득 찼습니다.

성 토요일은 성모님께는 고통스러운 날이었지만 슬픈  
날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모님의 믿음과 희망,  
그리고 신성한 아드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평화를  
가져다주었을 것입니다. 성모님은 차분한 그리움으로  
부활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성모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 19,26).

그녀는 처음부터 아들을 따르던 남자와 여자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도들의 믿음과 희망을 되살리려고 노력했을 것이며, 조금 전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마태오 17, 22-23).

주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완전히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대가 충실하고 싶다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성모님은, 천사의 아힘으로부터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을 받으시기까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 이외에는 다른 마음과

다른 삶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랑을 지니고 마리아께 가면, 그분께서는 그대를 위해 그대가 간절히 바라는 그 충성과 극기를 얻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13,4).

성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도들과 거룩한 여인들의 마음에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셨다면...? 게다가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때에도 아들과 가까이 지냈던 것처럼 어머니 곁에 함께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대의 사도직에 실망이 들어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듯이, 그대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밀물에 맞서서,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어머니 성심의 보호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저의 피난처, 저의 힘이신 성모 마리아여!”

평화를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침착하십시오... 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친구는 그저 몇몇 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괴로움에 찬 하루하루, 가끔은 하루카 너무 길어 보이더라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 13,3).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열한 제자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새로 태어난 교회의 일치를 지탱하고 계셨던 성모님의 어머니 같은 보살핌 아래 모였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께 갑시다.

성모님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성 토요일에 사도들은 믿음이 약해져 계속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신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모님에 대한 애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련의 시기에 그들은 성모님께 의지했고, 성모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도 큰 어려움 없이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매우 힘들 때, 어려움과 어둠의 순간이 있을 때에도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유혹의 바람이 불고 환난의 암초에 부딪히면 별을 바라보고 마리아를 부르세요." (성 버나드).

"마리아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폭풍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폭풍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투쟁하고 마리아의 안전한 피난처 안에 자신을 두면 안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둠의 시대에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옹호자이자 어머니이자 확실한 길잡이로 그녀를 선택하셨습니다.

"언제나 마리아님을 통해 예수께 가고, 또 예수께 '되돌아'갑니다." (길 495).

우리가 가장 충실한 처녀와 희망 인 그녀와 가까워지면,

우리 성소의 초자연적 성격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이 일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형성 수단과 내적 진보에 대한 희망과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그녀를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도움을 간청하면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를 생각하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성 버나드).

성모님의 강력한 전구에 호소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영혼의 혼란이 아무리 크더라도 성모님의 보호에 의지하지 않고 도움을 받지 못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갈바리아 산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나타내는 표식은 아직 없습니다. 성금요일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지, 진정 거룩하게 되길 원하는지 성찰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에 맞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으며 우리가 매일 하는

일에 사랑을 쏟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죄의 체험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더욱 충실해지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겠다고 더 깊이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사도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주신 사제로서의 사명을 꾸준히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제의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96).

성모님의 손에서 우리는 오늘 저녁 파스카 철야가 시작될 때 교회가 자녀들을 위해 간청하는 것을 부드럽게 받을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서 모든 그림자를 몰아내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삼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살아 계십니다.

거룩한 여성들의 신앙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마르코 16 ,1).

“이것은 진정한 관대함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마지막 경의를 표하러 갑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의 나쁜 예를 보세요. 이 여성들의  
믿음은 저를 정말 감동시켰고, 여러분도 어머니에 대한  
많은 좋은 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거룩한 여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고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시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학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지 보았고,

수난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만장일치로 비난을 받았는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마태오 27,25).

그 불의에 반대했던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뿐이었어요. 그들은 스승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았고, 스승이 승리하는 순간에 동행하지도 않았지만, 사형 선고를 내린 당국 앞에서 공개적으로 스승을 변호했기 때문에 저는 종종 그들이 일의 정신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용기와 관대함을 가지고 그의 시신을 수습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가장 고귀한 건물을 장식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십자가가 처형 장소였을 뿐입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했고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군인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이 완전히 닫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돈을 쓰고 해가 뜨기 직전에 우리 주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러 갔습니다.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마르코 16,2).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죠.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그것은 큰 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장애물을 보았지만 사람들이 사랑한다면 장애물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담함과 결단력,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 내 줄까요?" (마르코 16,3).

"그들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덤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자주 주저하나요? 우리는 그 거룩한 결단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거룩한 여성들의 결단과 대담함을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고백해야 할까요?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돌이 뒤로 굴러간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로 결심하면 어려움은 쉽게 극복됩니다."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과정이며, 십자가와 부활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성 바오로가 외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새 3, 1-4).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우리가 평생을 기꺼이 추구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부활절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전례력상의 이 시기에만 한정되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실제로 항상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떠나가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모범과 위대한 기억을 남겨주고, 잠시 계셨다가 사라져 버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의 부활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을 저버리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사야서 49,14-15)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의 기쁨은 사람의 아들들과 여전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살아 계십니다.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요한 16,7)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머무르십니다. 교회의 성사 안에, 교회의 전례와 가르침 안에... 교회가 하는 모든 일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머무르십니다”.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02).

우리가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은 은혜의 역사이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망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세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성례와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응답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혼 안에서 점점 더 발전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매일 봉헌하는 성찬의 전례 안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는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이자 원천입니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의 존재가 곧 이 세상에 계시는 당신 현존의 증거이며, 원천인 동시에 정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02).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는 성찬식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례가 빵과 포도주를 바칠 때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성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실제로, 실질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가 바치는 기도와 제물을 받아들이시어, 오늘 시작하는 이 파스카 신비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예물기도).

"성례전 덕분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의 상태에서는 인간이 성화되고 하느님으로 충만해진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감정과 열정, 슬픔과 기쁨을 가진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인간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일종의 마지막 부활의 예표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집을 지을 것이다."(요한 14,23).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애정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 하며, 성 바울과 함께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갈라티아 2,20).

성사를 통해 우리가 관대하게 응답하는 한, 성소라는 특별한 은총은 우리 안에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완벽하게 닮아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자신이 될 수 있는 모든 초자연적 수단을 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스스로 볼 수 있는 이 수단은 경건의 규범과 관습입니다. 이를 실천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진리를 느낄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그리스도의 삶은 성화의 내적 요소와 외적 삶 모두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복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으로 경건의 규범을 이행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성화 작용을 촉진합니다. 경건의 규범과 관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각 경건의 규범은 주님을 본받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안에서 점차 성장하는 내적 변화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규범에는 완벽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완벽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관상적 소명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거의 노력하지 않고도 실천하는 지점에 도달하는 사람(사실 투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느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며, 내가 그토록 반복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 호세마리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티아 2,20).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힘에 따라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분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을 더불어 나누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고, 또한 자기희생과 고행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낙관주의는 그저 달콤한 사탕발림도, "일이 잘 해결되리라"는 인간적인 낙관론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낙관주의는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 속에서 이뤄지는 자유와 신앙에 대한 깨달음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낙관주의는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계속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참으로 노력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비참함을 통해, 살과 피와 먼지로 이뤄진 인간인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더 나아지려는 우리의 노력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순수해지기 위해,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위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끝없는 섬김이 되기 위해 애쓰는 노력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114).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의 결과 중 하나는 영혼을 향한 열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 세상을 불태우러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루카 12, 49).

우리 각자는 불을 붙이거나 적어도 주변의 모든 것의 영적 온도를 높이는 타오르는 불씨와 같아야 합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하는 이 측면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행동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을 불태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불태우신다. (성 호세마리아).

모든 피조물 중에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자신을 가장 온전히 동일시한 분입니다. 그녀는 은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삶에서 매일 더 많이 재현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 성모님의 중보에 호소합니다.